

# 칩 ‘앤’ 데일

1950년대 《미키 마우스》 잡지에 등장한 캘리포니아 다람쥐 칩 ‘앤’ 데일. 둘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다. 상대방의 성별을 주장하거나 알 필요조차 없었다. 둘 모두에게 성별은 너무나 자명한 문제여서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않았다. 물론 각자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만, 원하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것을 취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한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

지금 내 생각은 어디로 흘러가버린 걸까? 혹시 나무 위로 간 걸까?  
 전설적인 철학자가 그랬다던 것처럼 나무 껍질과 몸통에 몸을 문지르면  
 내가없는 머릿속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고통이다—당신은 상상도 못할 만큼! 나는 머지않아 내가 절대 몸을 문지른  
 일은 없이 그저 사랑하기만 하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쓰다듬는다. 그들이 서로에게 너무나 다정하게 말을 건네니,  
 내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1950년대에  
 나왔던 《미키 마우스》 잡지(지금도 나오고 있을까?)에 등장했던 두 마리  
 캘리포니아 다람쥐, 칩 ‘앤’ 데일을 생각해 보자. 그들은 서로를 정말 사랑했다.  
 그들은 언제나 서로를 위해 존재했다. 칩 ‘앤’ 데일 사이에는 그 무엇도  
 놓여있지 않다. 둘 사이에는 물처럼 서로를 가르는 것도, 너무 깊은 것도  
 없었다. 그렇다, 그들은 한 쌍이고, 그건 자명한 사실이다. 상대방의 성별을  
 주장하거나 알 필요도 없었다. 성별은 둘 모두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 물론 각자는 하나의 성별이 있지만, 원할 때마다  
 상대방의 것을 취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한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다른 다람쥐도, 다른 성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소박하고 작은 생명체들  
 이다. 그들은 다른 존재를 재거나 평가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그런 평가를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뱀과 달리 매 순간 혀를 내밀어 서로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자신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다. 침묵할 필요는 없  
 지만, 침묵 속에서도 충분히 주인공으로 존재할 수 있다. 치-켓-치 치,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건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들의 사랑의 언어  
 이며, 완전하게 자명하다. 그들은 두 동물이 한 몸이 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두 성별이 하나로 합쳐진 존재이기도 하다. 비록 각자가 저만의 것을 지니고





있지만, 단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한다. 세상에서 이렇게 다정한 연인은 아마 그들 밖에 없을테다. 어린 시절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처음 본 이후로, 사랑에 관해 다른 무엇도 떠올릴 수 없게 되었다. 서로에게 믿음을 요구할 필요는 없었다. 그들은 상대가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보답할 필요 없이, 언제나 자유롭게 믿음을 주었다.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했다. 둘은 완벽히 서로를 사랑했다. 그들은 (성적인 의미가 아닌) 자신의 몸을 활용한다. 그들의 몸은 어떤 노력도 없이, 서로를 위해 작용하지 않아도 하나로 완벽히 조화를 이룬다. 서로를 배제하지도 포함하지도 않으면서도, 오히려 하나이자 동시에 다른 하나가 되는 사랑. 서로에게 강요 없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이다. 둘은 하나 안에서 둘인 동시에 하나다. 그러나 이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그들을 어리석고, 자신을 구별하기조차 게으르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불화가 없는 이중성을 이룬다. 분명 어떤 상황에서는 흥미를 끌 수 있는 틈새가 존재하지만, 자극적이지는 않기에 몸의 성향엔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이 몸들은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 그들이 신호를 보내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불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호는 상호적이며,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 걸보기에는, 칩 '앤' 데일은 사실 두 개의 (동시에 이중적인?) 물리적 현현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며—말하자면 상호작용하며—이 현현이 이루어지는 동안 필요한 만큼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정한 형태를 취할 필요도 없이 말이다. 아니, 그들은 단지 형태일 뿐, 현현일 필요는 없다. 사랑스러운 두 마리 동물. 한쪽은 항상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알고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쪽은 늘 상대방이 시작한 문장을 끝맺는다. 만약 문장이 짧아 두 번째 다람쥐가 너무 늦게 합류하고, 첫 번째 다람쥐가 이미 말을 끝내버렸다면(“제발 크리이 이이이스트마스 늦지 마아아아아!”), 두 번째 다람쥐는 사랑을 구현하고 대변하는(하지만 결코 강제로 “만들어지지 않는”) 메아리로 “마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라고 응답할 것이다. 그들의 몸에는 풍성한 털이 나 있고, 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마 가장 끔찍하고 심각한 해악이 되었을 것 같은 모습이다. 그들은 하나이며, 우리의 머리 위에 있고, 우리처럼 마르고, 잘 훈련 되고, 잘 다듬어진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이다. 우리가 신문의 사진에 실리거나 혹은 텔레비전과 같이 정말로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궁극의 기술 속에 등장한다면 말이다. 우리는 토크쇼나 스트립쇼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줄 수 있다. 결국, 보여주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모습은 절망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지고, 그로 인해 우리가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로 변모하게 된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그런 점에서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조차 TV에서 우리를 본 후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혐오하게 되었다. 칩 '앤' 데일은 누구도, 무엇도 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치장하거나 장신구로 꾸미거나 액세서리를 더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들의 사랑은 욕망 없는 사랑이다. 하지만 만약 한쪽이 욕망을 표현한다면, 둘은 이미 같은 것을 욕망했거나 그 순간 정확히 같은 것을 원하고 있으며,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하나의 욕망을 반복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은 올림이다.



실제로 말이 나오기 전에 울리는 올림. 실제로는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묘한 과정들의 기묘한 반전이다. 세상은 실제 전멸이 아니라 전멸의 가능성 탓에 더 기괴해진다. 이러한 위협은 기본적으로 항상 그전 임박해 있었을 뿐이며, 수십 년 동안 그래왔고, 어쩌면 지금이 평소보다 더 그런 시기인지도 모른다. 그들의 반복, 느린 올림 속에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진정한 충실함이 깃들어 있다. 그들은 심지어 작은 견과류도 나눠 먹는데, 이는 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왜 굳이 언급하겠는가. 그들은 거의 신과 같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하지만 신은 그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 세 위격(성부, 성자, 성령)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여기에는 단지 두 마리의 인간-동물만 있을 뿐이고, 그들의 사랑에도, 말하자면 그들의 대화에도 결코 멈춤이 없을 것이다. 그저 존재할 뿐. 그들의 사랑스러움은 결코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들은 그랬다. 한 명은 아마 여자일 거고, 다른 한 명은 남자일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쪽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자연을 보고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만약 서둘러 판단해야 한다면 그 판단에 신중할 것. 이런 구분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몸을 결정하는 책을 집어 들고 이 동물들을 살펴보기만 해도 된다. 기본적인든 부차적인든 그들의 몸, 성별, 그리고 모든 것들(한 마리는 더 크고 커다란 분홍색 코가 있지만, 지금은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다)을 말이다. 그들이 가치를 얻는 것은 감각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깃든 존재로서다.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그 무언가 다른 것이다—감지할 수도, 볼 수도 없이 더해진 것 말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로 인해 누구도 이득을 얻지 않는다. 동물들은 그로부터 무언가를 얻지만, 그것이 그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아마 서로에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들 주변의 세계는 사라지고, 물러난다. 나는 자연에 대한 나의 관점을 포기한다. 그것을 내려놓고, 내어준다. 원한다면, 마음껏 가져가도 좋다! 이 둘에게 ‘누구’와 ‘무엇’이란 하나이자 동일한 것으로, 드물긴 하지만 절대적인 일치를 이룬다. 거대한 강의 흐름을 바꿀 수는 있어도, 그 흐름을 멈출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는가? 그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흐름이며, 그저 하나가 다른 하나로 흘러갈 뿐이다. 어쩌면 서로 안에서 방향을 잃거나, 실수를 하거나, 겹치거나, 경계를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둘 안의 하나이고, 바로 거기서, 서로 안에서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둘 중 하나가 어디에서 끝나고 다른 하나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말이다. 그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도 서로의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기반을 잃어버렸고, 이제 나무 위에서 살아간다. 견과류 저장고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들만의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그들에게 상실하거나, 어쩌면 돌려받을 수도 있는 새로운 땅이나 토양이 필요하지 않다. 그 위에서 새로운 존재, 그들의 (진정한?) 존재가 자라나기 시작할 수 있더라도 말이다. 그들은 그런 것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 안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서로를 위해 보존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무언가, 심지어 가장 심각한 위협이나 극단적인 위협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랑이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거기에 존재한다. 어느 순간, 칩 ‘앤’ 데일은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한다. (물론 함께, 당연히 그래야 하는 바대로.) 그들은 함께 속해 있기에 이렇게 노래한다. “크리스마쓰 크리스마쓰 타아아임... 아아아임...” 하지만 애석하게도 도널드 삼촌의 집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다지 음악적이지 않고, 아름답게 부르지는 못한다. 도널드가 음악적이지는 않지만, 듣기 싫은 음악은 안다. 사실은 귀가 밝은 편인데,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조카들은 더 잘 알고 있다. 그의 말을 들으면 항상 재앙처럼 엉망으로 끝난다). 그는 그래서 스스로가 들어야만 하지만, 결코 자신의 말은 듣지 않는다. 또한 듣고서도 자주 그렇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칩 ‘앤’ 데일은 동물적인 무방비 상태로 노래를 부르며 교활한



도널드에게 노출된다. 그들은 도널드의 손아귀에 놓인다. 마치 기술이 등장한 순간부터 인간은 우월한 기술의 자비에 맡겨져 온 듯이 말이다. (적어도 도널드와 그의 친구들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오늘날에는 어떤 인간도 더 이상 누군가나 무언가의 자비에 의존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을 비워버렸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단순히 따라하는 것조차 못하는 텅 빈 표면이 되어버렸다. 자연된 메아리처럼 말을 따라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러려면 상대방이 말했거나 말했을 수도 있는 것을 듣거나 최소한 짐작이라도 했어야 할 테니까.) 그래서 인간은 기술과 생각의 자비에 맡겨져 있다. 생각은 이미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관련된 숫자를 상상하거나 개념화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1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생각은 심지어 스스로도 개념화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은 외부적 관점에서 세상을 인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자연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고안된 계산에서 오는 확실성, 즉 인간이 그것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는 확실성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더는 자연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자연을 계산하려는 것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 같다! 자연 한가운데 있는 나무에 앉아 있는 그들. 기술이 이미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은 자연과의 공존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칩 ‘앤’ 데일은 가장 소박하고 사려 깊어질 수 있는 기회들이다. 결국, 한 번에 둘 중 하나만 생각하며, 항상 교대로 생각한다. 한 쪽이 생각하는 동안 다른 쪽은 첫 번째가 말한 것을 따라 말한다. 이 둘은 현실에 발을 딛지 않은 채 나무 위에 앉아 있다. 그들은 자기가 한 작업이나 해낸 일을 지켜볼 필요가 없다. 그들은 견과류를 모았고, 그 작은 견과류를 보관할 공간이 있으며, 그것도 나무에 있으니까. 그리고 두 다람쥐에겐 그 나무로 가는 이정표가 필요치 않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물리적으로 붙잡고 오를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자신의 개념과 생각에 매달려 있다. 이 모든 건 어떤 식으로든 견과류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강렬하고 질게 농축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개념적 가치를 오르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에 대한 개념이나 생각을 얻거나, 갖거나,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진정 원하는 건 서로에 대해 품을 수 있는 모든 생각이나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이다. 단, 오직 서로에게만. 둘의 친밀함은 단순하고 차분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함께하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견과류를 보관하는 그들의 공간에는 냉장고가 없어도 된다. 어떤 장치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서로 상대방을 자신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고, 서로가 상대방의 세계의 일부다. 서로를 배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며, 마치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낯선 물체나 단순한 장치마냥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매 순간 서로를 자신의 세계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다. 그들은 어떤 유보도 없이, 누가 그 어떤 것도 배제할 필요 없이 서로를 자신 안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평온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혹시 둘은 형제자매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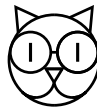


모른다. 그런걸까?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서로에 대한 사랑 속에서, 자신들에게, 그리고 서로에게도 보여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서로에게나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견과류는 둘 모두의 소유다!) 그들은 서로를 돕지 않아도 된다. 자신 그 자체로 상대방에 대한 도움이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거나, 혹은 의존하더라도 결코 떨어져 있지 않기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조차 모른다.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전혀 모른다. 그들에게 그런 곳을 보여줄 안내자도 없고, 그저 나무 속에 자리 잡은 그들의 공간이 전부일 뿐. (그들에게는 서로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에) 그들이 받아들이면서도 외부에 머무를 세계는 없다. 절대적인 것으로 설정되거나 우월한 존재에 의해 작동되는 것도 없다. 그렇다면, 거기서 어디에 초월성이 존재하는 것인가... 칩 '앤' 데일은 '예스예스'이면서 동시에 '노노'이기도 하다. 마치 당신이 하는 말이 그래야 하듯 말이다. 그들은 작동이 필요한 것들을 (장치들을!) 가리키지 않고, 오직 서로만을 가리킨다. 그들은 관계를 맺고, 하나이기에 이 관계는 자신들과도 완벽하다.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자연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 동물이긴 하지만, 동시에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에겐 행동과 비행동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바꾸거나 변형할 필요가 없다. 자신들조차도 그렇다. 그들은 다른 동물이나 자연과도 관계가 없고, 그런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관계가 없다. 그저 존재할 뿐이기에,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는 완전히 어둠에 가려져 있다. 이런 점이 너무나 노출되어 있기에, 나는 이것이 항상 정말 기이하다고 여겼다. 혼자인 사람은 누구나 노출되어 있으며, 취약하고, 무언가의 자비에 맡겨져 있다. 그것이 설령 원자폭탄이라 할지라도—그러한 힘 역시 자연에서 비롯되어 수십 년간 우리 머리 위에 매달려 있었고, 어쩌면 곧 재앙 속에서 우리를 숨길지도 모른다. 반면, 칩 '앤' 데일은 아늑한 굴에 숨어 있고, 그 굴 안에서 둘은 그저 함께하는 것 그 자체로 존재한다. 글썄. 그들의 비밀은 모른다. 원자폭탄은 더 큰 비밀이다. 칩 '앤' 데일이 실제로는 아주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모른다. 그토록 자주 요구되는 감각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야말로 큰 비밀이다. 하나라는 감각, 그것이 바로 비밀인 셈이다. 이 두 다람쥐가 어떻게 비밀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적어도 내게는 이 둘이 하나의 비밀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만약 드러나는 것이 비밀의 본질이라면, 그들은 비밀이 아닐 수도 있다. 폭탄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음에도) 아직 폭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것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처럼, 칩 '앤' 데일이 스스로의 비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것을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나는 사랑스러운 이 두 마리 동물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에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에 그들을 보았기에, 그들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그들을 둘러싼 신비함을 더해줄 뿐이다.



### 저자 소개

엘프리데 엘리네크는 다수의 소설과 희곡을 집필한 작가로, 비엔나에 거주한다.  
200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편집자: 잉고 니어만  
독일어 번역: 에이미 패튼  
편집: 로잔나 맥래프린  
한국어 번역: 박재용

일러스트레이션: 에바 파브레가스  
그래픽 디자인: 아나 도밍게스 스튜디오  
한국어판 그래픽 디자인: 박지현

© 2024, 엘프리데 엘리네크, 에바 파브레가스 & 와일드 퍼블리싱

스위스 바젤 응용과학대학교(HGK Basel FHNW) 예술 젠더 자연 연구소(Institute Art Gender Nature) 소속 기관